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탄절 후 제1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4.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일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청과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거센 격랑을 헤치며 살아온 나날이었습니다. 해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책망 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은 긍휼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 한 해가 가기 전에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용서하는 이의 홀가분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가려주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연약한 이들, 지금 눈물 흘리는 이들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골1:12-14 인도자

♠ 교 독 문 49. 빌립보서2장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황경순 집사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429.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다함께

성경봉독 I. 막10:35-45 인도자

..... II. 눅13:6-9 조관행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동상이몽 김재흥 목사

..... II. 덕분에, 때문에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기에게 집착할 때 삶은 무거움이 됩니다. 이웃들 곁에 다가가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양과 같았던 우리를 끝끝내 찾아와 구원해주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막힌 담을 사랑으로 허물어 불통의 세상을 소통의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해와 용서의 길 위에서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송구영신예배(저녁 11시)	성서의 평화(15)/김기석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기도 : 고광송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김중수 권사

12월	영접위원	한상익	김훈동	최철수	안정숙	정영선	유혜경
	헌금위원	윤석철	이호원	윤주원	조병주	박효선	강순배

상쾌해진 뒤에 길을 떠나라

어떤 마을에 큰불이 나서 모든 가옥을 태워버릴 기세로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현자로 알려진 수도자가 사는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자에게 제발 불길을 잡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도자는 시큰둥할 뿐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애가 탄 마을 사람들이 수도자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불 좀 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수도자는 말없이 움막으로 들어가더니, 평소에 엮어두었던 대바구니 여러 개를 들고 나와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어 어리벙벙해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수도자가 입을 떼어 말했습니다.

“지금쯤 마을이 몽땅 타 없어졌을 것이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 바구니에 숲을 끊어모으도록 하시오.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을 터인즉!”

그들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거요?”

수도자가 차분한 음성으로 대꾸했습니다.

“비극이란 거꾸로 뒤집힌 하나님의 축복이러오.”

수도자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겨울이 목전에 닥쳐왔으니, 인근의 수많은 마을에 숲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오. 그들에게 숲을 팔아서 돈을 넉넉히 벌어들이시오. 그 돈이면 훨씬 크고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외다.”

마을에 돌아와 보니, 정말로 집은 몽땅 타서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숲을 주워 모았고, 수도자의 말대로 그것을 인근 마을로 가져다 팔았습니다. 숲을 판 돈으로 그들은 한결 크고 멋진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희로애락의 거친 물굽이를 온몸으로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파도타기를 즐기는 스포츠 스타처럼 생의 거친 물굽이를 편안한 심정으로 담담히 받아 즐길 수 있는 이는 매우 드뭅니다. 인간의 삶은 스포츠처럼 그렇게 단순 명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자신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장애나 곤경에 마주칩니다. 이때 인간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절벽과도 같은 삶의 장애 앞에서 낙담과 절망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이어가는 경우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장애를 새 삶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여 이전과는 다른 새 삶의 지평을 여는 것입니다.

“비극이란 거꾸로 뒤집힌 하나님의 축복이요.”

수도자가 한 이 말은 단지 곤경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인간의 위기는 신이 개입할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잔피를 굴리던 머리를 숙이고 겸손에 이르며, 자기 가슴을 열어 신이 끼어들 여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시련과 장애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습니다.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없으면 들판의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는다는 말처럼, 인간의 영혼도 시련의 비바람이 없으면 신이 기뻐할 만한 존재로 여물지 못합니다. 생의 시련이나 역경이 없는 것을 행운으로 여기는 이도 있겠지만, 그런 인생은 아름답게 여물지 못하고 그냥 늙어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궁지에 몰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그 순간이 바로 삶의 새 장을 열어갈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신은, 우리가 마주치는 장애를 자기 성숙의 디딤돌로 활용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곤경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불행감에 젖어드는 대신, 그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 신의 도움과 축복을 끌어들이 수 있으면 합니다. (고진하, <<부드러움의 힘>> 중에서)

바람은 그 강인함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의 승리의 깃발을
펼럭이게 합니다.

바람은 불꽃에 빛을 더하고
희망의 이슬로
믿는 이들의 상상력에 물을 줍니다.
-빙겐의 성녀 힐데가르트

반성 100

-김영승

연탄 장수 아저씨와 그의 두 딸이 리어카를 끌고 왔다.
아빠, 이 집은 백 장이지? 금방이겠다, 머.
아직 소녀 티를 못 벗은 그 아이들이 연탄을 날라다 쌓고 있다.
아빠처럼 얼굴에 껌정칠도 한 해 명랑하게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딸을 낳으면 이 얘기를 해주리라.
니들은 두 장씩 날러.
연탄 장수 아저씨가 네 장씩 나르며 얘기했다.

** 이 ‘명랑한’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 구들장 환하게 달아오르지만, 왜 이리 가슴 한켠이 아린지 모르겠다. 어느 구절에도 값싼 감상(感傷) 하나 없으나 낫날이 시큰해지는 건 ‘말속에 숨은 말’ 때문이다. ‘아빠, 이 집은 백 장이지? 금방이겠다, 머.’에서 쿡하고, ‘니들은 두 장씩 날러.’에서 또 쿡한다.

‘껌정칠’ 대신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것질 투정이나 할 소녀들이 아닌가? ‘추운데 니들은 들어가.’를 삼키고 고맙고 미쁜 마음에 우러나오는 ‘두 장씩 날러.’가 아닌가?

저 연탄 장수 부녀들은 달동네 높은 길을 걸어 올라온 게 아니라 연탄 리어카 쟈 눈송이를 타고 사르락 지상에 내려왔다가 사뿐히 하늘로 날아 오를 듯하다. (반철환의 감상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리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 헌금:

박정영 오혜수 민관준 호영희 영
 장영호 홍승찬 선내희 김
 안민우 홍승찬 선내희 김
 임박한 박정영 오혜수 민관준 호영희 영
 박정영 오혜수 민관준 호영희 영
 장영호 홍승찬 선내희 김
 안민우 홍승찬 선내희 김
 임박한 박정영 오혜수 민관준 호영희 영

월정 헌금:

윤성중 김윤정 정미경 박상규 황원순 순현영 황자순 김성자 조병주 전영규
 김경수 김고문 윤수홍 임이백 이봉혜 우신규 김승혜 김김유 원승혜 순현영 황자순 김성자 조병주 전영규
 박찬정 문훈 일백혜성 우신규 김승혜 순현영 황자순 김성자 조병주 전영규

감사 헌금:

박창운 허정윤 배삼순 권호천 백숙현 김용길 최영혜 박병구 권미숙
 김종철 한선희 최중순 김원욱 김미채 김한길 이지혜 김정웅 김익관 최영진 헤규경 박권최 인환 구순환 권택무 미혜명3

생일감사 헌금: 김주희 오광자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임주빈 최현욱 임유미 임창극 김철수 윤석철 장혜숙 시므온선교회
 참빛여성찬양대 (누계- 22,25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쉽	쉽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흥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1. **송년** : 우리의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한 여정에 동행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2. **송구영신예배** : 오늘 저녁 11시부터 송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첫 단추를 잘 채우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십시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3. **주현절** : 1월 6일은 주님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입니다.
4. **사경회** : 1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경회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MYF는 오전 9시부터, 장년은 오후1시부터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봉사** : 새해에도 봉사활동은 계속됩니다.
 종묘 급식 봉사 - 1월 3일(수) 오전 11시 15분
 애니아의 집 목욕 봉사 - 1월 5일(금) 오후 12시 30분
6. **교사모집** :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치부 1명 (피아노 반주 가능하신 분 환영), 중고등부 1명입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신앙실천** : 하루하루를 영원에 잇대어 살기 위해 버릴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보십시오.

* 식당 봉사 : 가버나움 속

* 헌화 : 장영숙 전도사 (송년 감사)

1월	영접	조병무 박창운 고사일 곽혜자 허정윤 최영선
	헌금	김철수 김준호 하현철 구명자 안정숙 박홍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